

지역 소식통

김제시자원봉사센터
GGG릴레이캠페인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21일, 요촌동 수곡 마을에서 봉사자 10여명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GGG(지구를 지키는 지평선) 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11가구의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밝혔다.

“GGG(지구를 지키는 지평선) 릴레이 캠페인”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봉사자와 마을주민이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업이다.

LED로 교체 시 기존 백열등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어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져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식품제조형
공장 창업가 모집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식품제조형 공유공장을 개관한 완주군이 예비 식품창업가를 모집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식품제조형 공유공장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W푸드테라피센터에 구축됐다.

이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R&D과제(주관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oT(AI Convergence Technology) 공유주방 안전관리 플랫폼이 도입됐다.

특히, W푸드테라피센터는 제조, 유통, 판매가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창업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실제, 밀피유니베(진심), 들깨 시래기국·묵은지찜(시암골) 등이 인기 밀키트 상품으로 생산돼 판매되고 있으며, 도내 발효식품 명인들 역시 한식 밀키트 사업을 위해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공약사업 체계적인 이행·관리

김제시, 2024년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정성주 김제시장의 민선 8기 62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시는 2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단장 박종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약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그간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변경이 필요

한 공약사업의 심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련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62개 공약사업에 대해 점검한 결과 완료된 5개 사업을 포함한 53개의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일부 추진사업 9개에 대해서는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으로 변경된 공약사업은 △민선시대 성공정

책 승계(지평선축제의 세계화), △김제축제재단 설립(가칭),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김제시당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가맹점 대중화, △찾아가는 농촌혁신복지관 운영, △백새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진단장려금 지원사업, △화생 안전을 위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 확대, △소농직불금 증액, △농민수당 확대, △생태순환(우분) 농업 활성화 및 드문포 재배기술 확대, △청년농업인 융자금 이차 보좌금 지원사업, △농특산물 판매거점 확대 운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촌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 △새만금 청년 농촌보급리 조성 등 총 16개 사업으로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종원 공약이행평가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에 고생 많았다”며,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의 등을 통해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김제 발전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나서

'JOB-부킹데이 현장면접의 날' 개최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제공,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나섰다.

21일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웅에 따르면 지난 20일 완주군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JOB-부킹데이 현장면접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재천 의원을 비롯해 완주군로컬JOB센터 강애진 팀장, 완주군가족센터 김정은 센터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주무관,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조경아 소장, 결혼이주여성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면접의 날은 구인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채용행사로서 (주)정석캐미칼, (주)오디텍, 대립씨엔씨(주) 등 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채용을 위한 1:1 현장



지난 20일 완주군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JOB-부킹데이 현장면접의 날' 행사에서 결혼이주여성 20명여 명이 참석했다.

면접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구인 기업들은 현장 면접 결과를 토대로 추후 심사를 거쳐 최종 취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용행사 외에도 완주군가족센터의 구직상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실시해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종광 주무관은 “앞으로도 고용부

전주지청은 취업난 해소 및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 의원은 “이번 JOB-부킹데이 현장면접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전통시장 동행축제 개최

김제시, 22~24일 할인행사·경품증정 이벤트 등 다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김제전통시장에서 가정의 달 맞이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에 열리는 '2024 동행축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소비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국민 소비 행사이며, 김제전통시장에서도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먼저 전통시장 내 35개 점포 68개 품목을 10~30% 할인 판매하는 행사와 직거래장터가 3일간 열리며 1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직거래 장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간

단한 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해 선착순 25명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게임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장바구니 만들기와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고, 이벤트 참여방법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직거래장터 옆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전통시장에서 3일간 운영되는 동행축제에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많은 참여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할인행사 등을 통한 소비촉진을 계기로 고객과 시장 상인 모두가 웃는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공중보건의 축소 대책 마련”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20일 보건소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중보건의 축소에 따른 대책방안과 향후 보건소 업무 방향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에는 공보의 2명이 의료과정을 나가 11개 보건지소에 4명의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과전 공보의가 속한 병동, 비병, 고산, 경천 보건지소는 주 1일로 진료일을 축소했다.

군은 공중보건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보건지소의 기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존 진료 중심 영역에서 감염병 예방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별 다양한 특성구 주민요구와 연계되는 통합 건강증진 중심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

대한다.

이를 위해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 △정신건강예방 △보건사업팀 특화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까지 주민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내달부터 감염병 및 건강증진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의 업무 전환을 실시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완주군의 지역현황에 맞는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완주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2024년 새로보미 축제 성공 개최 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1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원장 천왕우)와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 및 자원순환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공동의지 아래 성립됐으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장 준비와 프로그램 구성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학생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축제로 쓰레기 배출부터 재활용·재활용되는 ‘쓰레기의 일생’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첫 포문을 연 새로보미 축제는 다양한 자원순환 교육·체험·놀이 공간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